韓國袈裟에 나타난 天·王紋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天 · 王 Embroidery in Korean Gasa

이순덕
동주대학 패션계열

Lee, Soon Deuk
Dept. of Fashion Design, Dongju College

Abstract

Gasa was a surplice of Buddhist monk. It was usually worn in the religious ceremony. Gasa was such a religious cloth that was ruled strongly by Buddha's Commandments, and a kind of cloth that was also reflected by historical, cultural, and ideological factors of each nation. Korean Gasa had various features comparing to the Original Gasa or to that of South Asia which is the birthplace of Buddhism. One of them was 天 · 王 embroideries that we could find upon the regular square base in the four corners of Korean Gasa. These figures symbolized the Four Devas which were believed guarding Buddhist sanctum. These Devas appeared from the era of the Three Kingdoms when Buddhism imported. Buddhism as a alien religion had been developed through conflicting and fusing with Korean traditional religious characteristics into type of 'Faith to Three Treasures' (Buddha, Buddhist Commandments, Buddhist monk). They believed that embroidering 天 · 王 figures upon the regular square bases in the four corners were able to protect Buddhist monk by the help of Four Devas. We might say this as a kind of Faith to Buddhist monk.

Key words: Buddhist Commandments, Gasa, Four Devas, 天 · 王 embroidery, Faith to Three Treasures

袈裟는 불교 승려의 옷으로서 종교적 의식이 있을 때 착용하는 의복이다. 가사는 승려의 복식인 만큼 불교의 律法으로부터 강한 규정을 받고 있지만, 가사도 하나의 복식이므로 거기에는 각나라의 사회적 · 문화적 · 사상적 요소도 반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승려들이 입는 가사에는 율법에서 규정된 가사나 불교발생지인 南方 가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紋樣들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사의 네 각에 정방형의 바탕에 수놓아진 天 · 王字는 四天王像을 상징한다. 사천왕은 佛殿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護法의 神으로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외래종교인 불교는 전통적인 우리의 종교적 성향과 습합하여 佛·法·僧의 三寶信仰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이 중에서 僧寶信仰의 한

*본 논문은 동주대학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Lee, Soon Deuk
Tel : 051)200-3464, Fax : 051)201-5420
E-mail: sdlee@dongju.ac.kr

형태로 가사의 네 각에 사천왕상을 상징하는 天·王紋을 수놓음으로써 승려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게 된 것이다.

Ⅰ. 머리말

袈裟는 원래 불교 승려들의 옷으로 승려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나 종교적 의식이 있을 때 항상 착용하는 의복이다. 이러한 일상적인 의복이었던 가사가 불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각 나라의 기후와 문화에 따라 다른 의미와 형식을 가지게 되었다. 종교란 내면적인 수행이 본질인 만큼 외형적인 복식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승려들은 일반인과는 구별되어 종교적 실천을 생활화하는 사람들이다. 종교복식은 승려들을 일반인과 구분 짓고 타종교와 구분 짓는 하나의 징표이며, 그 복식을 착용함으로써 승려들은 자신의 종교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종교인으로서의 품위와 언행에서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종교복식을 착용한다는 것은 종교적 실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석가세존이 계율로서 가사를 제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 승려의 복식인 가사는 불교의 기본사상으로부터 강한 규정을 받고 있지만 가사도 하나의 복식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거기에는 각 국가의 사회적·문화적·사상적 요소도 반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승려들이 입는 가사에는 律法에서 규정된 가사나 불교 발생지인 南方 가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紋樣들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사의 네 각에 정방형의 바탕에 天·王字가 수놓여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天·王字의 기원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 내용은 첫째, 사천왕상의 기원과 의의에 대해 알아보고, 둘째, 율법의 근본을 기록하여 놓은 經과 律에 근거하여 가사의 원형을 고찰한다. 세째, 실물가사와 高僧眞影 등에 나타난 가사를 관찰하여 한국가사가 지니는 특징을 찾아보고, 그것을 가사의 原型과 비교하여 차이와 변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넷째, 이러한 특징과 四天王像과의 관계를 구명하고자 한다. 가사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유영자(1979)는 '한국의 승복에 대한 연구'를, 안명숙(1989)의 '가사의 연의에 관한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율법의 근본을 기록한 경전에 근거하여 가사의 종류와 색, 가사의 의미를 구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천왕상에 대한 연구로는 문명대(1980)의 '신라 사천왕상의 연구'. 김리나(1989)의 '통일신라시대 전기의 불교조각양식'. 권강미(2001)의 '통일신라 사천왕상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천왕상에 대한 일반적인 신앙이라던가 사천왕상의 조각양식에 관한 것이 중심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가사에서만 독특하게 볼 수 있는 천왕문의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율법을 기록하여놓은 經과 律에 관한 것을 문헌을 중심으로 먼저 고찰하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 나라의 가사가 원형의 가사와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또한 가사에 나타난 천왕문의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사찰과 율사 스님들을 방문해서 얻은 자료와 자문에 의거하고 있다.

Ⅱ. 四天王像의 기원과 의의

사천왕은 불교의 護法神으로서 불교의 경전에 일찍부터 등장하고 있다. 인도의 민간신앙의 약시나 약사와 같은 守門神像에 기원을 둔 사천왕상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 한국, 일본 등으로 전래되어 조각이나 불교회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천왕의 형상은 악귀를 밟고 무기를 든 형상으로 사천왕의 수호신적인 성격과 함께 인도 민간신앙의 수문신상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호국사상에 관한 교설이 소승적 경론과 대승적 경론 및 기타 여러 문헌상에 다수 나타나 있다. 護世護國主로서의 사천왕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경전상에 나타나 있는 것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전중에는 興起行經 (大正新修藏經 권4, 168中), 佛說長阿含經 권5 등과 같이 사천왕의 이름만 볼 수 있는 경전이 있고, 사천왕을 護世者로서 한 경도 있는데 그것은 佛說長阿含經 권12, 大會經 제15 (高麗大藏經 권17, 914 上1中) 등이다.

한편 사천왕신앙의 융성은 그에 따른 사천왕상

의 활발한 조형활동으로 나타난다. 사천왕상은 도상적으로 인도에서는 貴人形이었던 것이 대승불교권으로 전래되면서 甲冑차림의 무장형으로 변모되어 가며 우리 나라에서도 무장형의 사천왕상이 유행하게 되었다. 사천왕은 아래와 같은 四王으로 이루어져 있다.

持國天王은 수미산의 동방을 지키는 천신으로서 범어로는 제르타라스트라(Dhritara stra)인데, 이를 음역해서 제선나타 등 10여 종류로 쓰고 있다. 화엄경소 제5에는 제선라타는 동방 천왕인데 이를 지국천왕이라 부르고 있다. 즉, 이 말은 치국, 안민, 지국 등의 뜻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토를 잘 다스리고 중생을 안온하게 하는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多羅尼集經 제11(大正藏18上)에 의하면 지국천은 왼팔을 펴서 내려뜨려 칼을 쥐고, 오른손은 손을 위로 올려 손에 寶를 쥐고있다고 한다.

增長天王은 수미산의 남쪽을 지키는 천신인데, 원래 범어로는 비루다카이며, 음으로 한역하여 비노타가, 비유다, 비루록차 등으로 썼으며, 의역하여 「증강」 또는 「증광」을 의미한다. 그 뜻은 더욱 길고 더욱 넓다는 말로 중생의 이익을 증장·증광시켜준다는 뜻이다. 지물로는 왼손에 칼을 잡고 오른손에 창을 들고 있다.

廣目天王은 수미산의 서쪽을 지키는 천신이다. 이 광목천왕은 범어로 비루파카(Virupaksa)라 부르고 있는데, 음으로 한역해서 비노박차, 비유파하차, 비루파차 등 여러 가지로 불리우며, 이를 추목, 악안, 잡어, 광목 등으로 의역했다. Virupaksa는 Vi-rupa와 aksa의 합성어인데, Virupa는 추 또는 여러 가지 색이고, aksa는 눈 또는 근의 뜻을 지니고 있어서, 여러 가지 색의 안 또는 여러 가지 색의 근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 광목천왕은 크고 넓은 눈을 지닌 천왕이라 하였는데, 본래 이 광목천왕은 인도교의 파괴신이며, 3개의 눈을 가진 시바신이 변화한 것이라 한다. 역시 넓고 큰 눈으로 수미산의 서방 국토를 수호하고, 중생을 이익 되게 해주는 일을 맡은 천왕이다.

多聞天王은 수미산의 북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범어로는 바이사라바나(Vaisaravana)이며, 중국에서 한역하기를 비사문, 비사라파라, 폐실라미나, 비사문 등으로 음역하였으며, 또한 다문 또는 편문 등으로도 의역되었다. 그 뜻은 많이 듣고, 널리 듣고, 두루 듣는 천왕이라는 것이니, 이것은 법화의소에서, 「비사문은 북방의 천왕이다. 그래서 다문 또는 편문 등으로도 의역되었다. 그 뜻은 많이 듣고, 널리 듣고, 두루 듣는 천왕이라는 것이며, 이것은 법화의소에서, 비사문은 북방의 천왕이다. 그래서 다문이라 한다. 항상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고, 설법을 듣기 때문에 다문이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임영주, 1983).

사천왕은 이 세상을 진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호세주로서의 법력을 갖고 있으며. 사천왕의 형상 또한 호법신다운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한 사천왕의 복식을 보면 안에는 평상복을 입고 그 위에 방어용 갑옷을 착용하고 있다. 평상복은 소매는 半袖의 형태로 그 끝을 불룩하게 묶고 있으며, 소매의 끝단에는 주름을 촘촘히 잡았다. 하반신에는 袴와 裙을 입고 있다. 袴는 정강이 부분에서 불룩하게 묶고 있다. 어깨 위에는 스카프형 망토인 견포를 두르는 像도 표현되고 있다. 허리에는 굵은 요대를 두르고 양옆으로 숄 형태의 天衣를 걸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四天王에 대한 信仰이 형성된 것은 삼국시대부터 불교 수용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기록이나 예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三國史記」 百濟 本紀에 의하면 義慈王二十年(660)에 四天王寺의 탑이 진동했다는 기록이 있고, 高句麗 古墳壁畵에 天王地神塚이 있다. 또한, 삼국유사 권 제2 문호왕 법민조에 보면, 신라 때 명랑 법사가 풀로 오방 신상을 만들고, 문두루의 비법을 행하였다고 하는 사천왕사의 창건에 관한 기록이 있으며, 또 권 제4 의해와 제5양지사석조에서도 명장 양지가 영묘사에 장육삼존과 천왕상을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서 이 때에 이미 사천왕에 대한 신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때부터 그 조형이 많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천왕의 조상을 통해서 사천왕의 신앙이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

사찰을 통칭하는 말로 伽藍이 있다. 가람은 梵語의 Sangharama를 말하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衆園이라 번역되고 많은 승려들이 모여서 불도를 수행하는 장소를 일컫는다. 그러나 그 후 이것은 단순한 건조물로서의 殿堂이 아니라 聖地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갖는다. 먼저 사찰이 聖地化된 배경을 살펴본다. 唐代의 불교신앙의 일단인 법화경신앙은 재래의 靈地信仰과 결합하여 민간 신앙으로 널리 퍼졌고, 우리 나라의 불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통도사와 월정사의 寺蹟記를 보면 중국 오대산의 영지신앙과 文殊信仰이 慈藏에 의하여 이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영지신앙은 전입되면서 우리 나라 전래의 산악숭배사상과 습합하여 한국의 사찰(伽藍)을 형성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의 사찰이 절경의 산계곡에 위치하고 또 성지화된 배경은 여기에 연유한다. 聖地로서 우리 나라 사찰의 형식은 殿閣을 통하여 잘 나타난다. 사찰에는 本殿으로서 佛殿이 있고 도량내의 모든 惡鬼를 물리친다고 믿는 擁護神衆閣이 정문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四天王門이다. 이 門을 들어서면 좌측에는 持國天王, 多聞天王이, 우측에는 增長天王, 廣目天王 등 네 神將像이 있고 이것이 四天王으로 불리운다.

Ⅲ. 袈裟의 원형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복장은 그 사회생활의 양식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比丘도 糞掃衣를 입고 樹下石上을 본래의 행처로 했던 시대는 그 분소의야말로 가장 적당한 복장이었을 것이다.

분소의는 그 문자에 대해서 말하면 塵埃의 集積所에 버려져 있는 衣材인 것이다.

漢譯律藏에는 분소의에 대하여 다음에 기술하는 것과 같은 여러가지의 구체적인 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四分律」에 의하면 糞掃衣는 10종류가 있다고 하였다. 牛嚙衣(소가 씹은 옷), 鼠衣(쥐가 갉아먹은 옷), 燒衣(타서 눌은 옷), 月水衣(여자의 생리로 더러워진 옷), 産婦衣(출산 때 더러워진 옷), 神廟中衣(사람이 신묘에서 버린 옷), 塚間衣(묘지에 버려진 죽은 사람의 옷), 求願衣(신불에게 發願을 하고 버린 옷), 王職衣(모든 職이 변할 때 役職이 입었던 職衣는 쓸모 없으므로 버린 옷), 往還衣(관에 걸쳤던 옷) 등이다. 이 당시 律로서의 袈裟는 사람들이 못쓰게 되어 버린 옷(弊衣)을 주워서 성한 곳을 잘라내어 깨끗이 세탁하고, 그것을 이어서 만든 것이었고 比丘의 衣材는 糞掃衣로 한정하였다. (南傳大藏經 22권, 1926)

「巴利律」에서는 단지 분소의라고만 하고 있을 뿐이다.(南傳大藏經 3권, 1938) 그러나 律藏「의건도」에는 比丘가 무덤에서 분소의를 취득하는 것과 그 취득의 배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분소의는 주로 塚間衣 즉 '死屍를 싸서 묘지에 버린 옷'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糞掃와 市場에 떨어진 천은 원하는 만큼 힘써서 얻어라」라는 기록이 있다. 이것을 통해 보면 상점의 문밖 등에 버려진 의료가 분소의와 같이 僧衣의 의료로 생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無穢經」에는 糞掃衣와 粗服衣가 병기되어 있다. 粗服衣는「律藏經分別部」에 의하면 찢어지고 타고 변색하고 쥐에게 씹혀 諸比丘는 惡意粗服이 되었다. (新修大藏經권22, 1926)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비구가 사용하고 있고 파손된 의복, 소위 納衣에 관한 것이라고도 해석되지만 塚間衣는 분명히 처음에는 분소의와 구별한 옷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巴利經」에는 糞掃衣, 總間衣, 商店의 문전에 버려진 옷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들은 처음에는 개별의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모두 出家人의 옷으로 사용됨에 따라 그 후에 이들을 모두 광의의 분소의로 불리워지기에 이른 것이다. 즉 처음에는 협의의 분소의가 출가인의 의재로 사용되었으나 점차 良家의 자제들이 출가하게 되었고, 친가 사람들은 이들을 위하여 광의의 분소의를 만들어서 문앞에 버리는 형식으로 공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巴利律에서는 아마, 대마, 견, 모등 6종의 衣材를 들고 있는데 현재도 남방불교국에서는 위와 같은 의재를 마찬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면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견이나 모는 부유한 신자가 시주하는 것으로 승의 계급에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다. 縫絲는 파인애플엽 섬유, 마, 등굴식물 섬유에서 실을 뽑아내지만 현재는 거의 면사를 사용한다.

다음으로 가사의 색에 관한 율의 규정을 살펴본다. 가사색을 보통 壞色이라 하는데, 괴색은 탁의의미가 있다.(井筒雅風,1982) 北傳五部律에는 5색 즉 청, 황, 적, 백, 흑이 아닌 괴색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南傳巴梨律에는 황홍색을 사용하게 하여

각 나라가 따르는 계율에 따라 그 나라의 가사색이 다르게 나타난다. 제율을 통해 보면 대개 가사의 색을 3종으로 나눈다. 사분율에는 청, 흑, 목란 등으로 (신수대장경,권22,1926) 유부율에는 靑, 泥, 赤, 巴梨律에서는 靑, 泥, 암갈색 등으로 되어 있다.(남전대장경,권3,1938)

원래의 가사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둡고 탁한 색으로 색채학적인 정확한 규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신심을 현란시켜 수행을 방해하거나 속인들이 탐하는 색을 금한다는데 본질적인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Ⅳ. 袈裟에 나타난 天·王紋

가사에는 여러 가지 문양이 나타나고 있다. 독일의 현대 철학자 캇시러(E. Cas- sirer)는 「인간은 언어형식, 藝術的 心象, 神話的 象徵 그리고 종교적 의식에 둘러싸여 자기 스스로가 이루어 놓은 것에 의해 구속되며 동시에 해방되어 가는 존재이다」라고 한다. 캇시러의 이러한 정의는 인간의 본능적 상징화의 속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 상징화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이 추구하는 영원성을 교시하는 복합적 개념이며, 그것을 개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물에 象徵的 意味를 부여한 상징물이 도입된다. 예를 들면 백합은 기독교의 정신인 박애와 사랑을 상징하고 있고, 蓮華는 불교의 정신인 대자대비를 상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식물은 우주의 조화로 생겨난 자연적 사물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은 그것이 가지는 특징으로부터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하며 거기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다시 상징적 표현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승려들이 입는 가사에는 律法에서 규정된 袈裟나 불교발생지인 南方 袈裟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天·王을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천왕은 전래의 神觀에 의하여 신을 상징하는 具象物로서 신앙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상징물이 紋樣化 되어 袈裟에 나타나게 된 배경은 僧寶信仰의 所産이라 볼 수 있다. 즉 가사불사공덕에 대하여 大藏經隨字函十六卷第八章에 보면 「上品衣를 造成하면 或 人間으로 태어나되 一人之下萬人之上이 된다」고 하였고 또한 「袈裟」는 여래가 중생을 攝化하는 威儀이며 보살이 蠻行을 勤修하는 법복이므로 가사를 조성하여 발원하는 자는 天災說消하고 百福이 운홍하여 몸에 입거나 걸어 모시는 자는 신이 침범하지 못하여 항상 賢聖이 옹호한다」고 하였다.(金東湖, 1972) 그리고 현재도 불교승려들은 가사를 입을 때는 가사를 향해 합장을 하고 절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을 볼 때 가사는 신앙의 대상이 되고, 袈裟를 신성시하는 수단으로서 神格의 象徵物이 袈裟에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불교와 민간신앙의 습합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연장하여 우리나라의 袈裟의 특징이 갖는 천왕문이 갖는 象徵的 意義를 해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불교는 종교적 성향과 습합하여 三寶信仰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鄭雲龍,1990) 神佛習合에 의한 三寶에 대한 信仰으로 형성되는 사찰의 聖地化는 袈裟의 神聖視와 맥을 같이 한다. 이미 이러한 단계에서의 袈裟는 분소의로서의 본질적 의미는 상실하였고 僧寶에 대한 信仰의 具象的 性格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라 가사가 갖는 특징 가운데 네 귀퉁이에 정방형의 바탕에 수놓은 天·王字는 불전을 수호하는 四天王像의 象徵이라 할 수 있다.

그 예로 현존 유물로 전해오는 실물가사와 고승들의 진영을 통하여 천왕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실물가사에 나타난 天·王紋

袈裟를 뜻하는 기록을 보면 三國史記에 의하면 왕이 불교를 일으키고져 함에 여러 신하들이 말하기를 「지금 僧徒들이 머리를 깎고 이상한 의복을(憧頭異服)하고 있다」(李丙燾, 1977) 라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승려가 머리를 깎고 袈裟를 착용한 것은 법흥왕 시대로 추정된다. 三國遺事 原宗興法條에서 보면 「法興王이 절을 세워 冕旒를 벗고 方袍를 입으며 관료들을 데리고 가서 寺奴를 삼고 그 절의 主持가 되어 몸소 弘化를 맡아하였다」(釋一然, 1512)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方袍는 승복을

말하는 것이며, 王이 沙門이 되었기 때문에 왕의 法衣인 가사 또한 화려했을 것으로 추측이 가며 또 이러한 것이 승려들의 복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존 유물 가사에서 천왕문을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고려시대의 大覺國師 袈裟, 그리고 근대 가사로는 精岩스님 가사, 대흥사 소장 지운스님 가사<圖 1>, 및 통도사에 소장된 25조 홍가사, 17조 반가사<圖 2>, 9조 청색가사, 9조 하절 홍가사 등이 있으며, 현재 착용되고 있는 가사로는 太古宗, 天台宗 가사 등에서 천왕문을 볼 수 있다.

全南 昇州郡 雙岩面 仙岩寺에는 고려때 大覺國師의 袈裟가 전해져 온다. 대각국사는 고려 제 11대 문종의 셋째 아들이며, 이름은 후(煦), 字는 義天이며 고려 천태종의 開祖이다. 이 가사는 후면에 기록된 墨書銘에 의하면 「高麗宣宗大王 下賜 大覺國師 北宋元祐 二年 丁卯」라 되어 있어 서기 1087년에 高麗 十三代 宣宗이 대각국사에게 下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袈裟를 「大覺國師錦欄袈裟」라고 부른다. 금란 가사는 金疊衣, 黃疊衣, 金縷袈裟라하기도 하며, 금실로 지은 가사를 말한다.

이 가사의 바탕색은 大紅色이며 가사의 네각에는 四方 2cm 가량의 청색 비단 바탕에 天·王字를 上段은 天,下段은 王으로 홍색 실로서 平繡로 수놓았다. 中央에는 日을 나타내는 三足烏와 月을 나타내는 토끼 그리고 그 주위에는 여러 가지 색실로 雲紋과 山紋이 수놓아져 있다.

袈裟의 크기는 가로227cm, 세로 60cm이며, 緣넓이 3cm, 葉넓이 2cm, 條數는 25條4長1短으로된 大袈裟이다. 色은 紅色이며, 천은 비단으로 되어 홑겹이며, 紅色, 靑色, 紫色의 견으로 된 纓子가 달려있다. 纓子는 위쪽에 네 개, 양쪽에 한 개씩 여섯개가 부착되어 있다. 이 가사의 끈을 묶는 방법은 여섯가닥을 한 묶음으로 하여 매듭 짓는 방법, 여섯 가닥을 세 묶음으로 나누어 매듭짓는 법등을 볼 수 있다. 매듭을 지은 모습은 다양한데,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매듭지은 것과 마구 잡아 묶은 듯한 모습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승려의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실용적인 면보다 장식적인 면에 더욱 치우친 것 같다.

袈裟의 長條와 短條에는 黃色실로서 上段에는 佛의 名號, 二段과 三段에는 菩薩, 四段에는 佛經, 下段에는 尊子의 名號를 平繡로 정교하게 수놓은 繡袈裟이다. 또 이 가사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열한번째조 二段에 日을 표시하는 三足烏를 홍색 비단바탕에 수놓았고, 그 주위에 연화문, 운문과 산문이 수놓아졌다. 三段에는 月을 나타내는 토끼를 백색 비단 바탕에 수놓았다. 해를 三足烏로 달을 토끼(月宮)를 상징한 것은 일찍이 삼국시대의 고구려 벽화에서도 보인다.

생명을 육성시키는 요소인 日(月)과 불변함과 영속성을 말해주는 산과 도교적 초 자연상태의 변화무쌍한 雲을 가사에 수놓았다. 이것은 古來로 장수의 상징이 되는 대표적인 자연물을 문양화함으로써 不老長生을 염원한 것이다.

근대의 유물 가사에서 천·왕자를 볼 수 있는 가사로는 통도사, 대흥사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근대는 大韓으로 국호를 고친 고종34년 광무원년 1897년 이후부터로 하였다. 광무 6年(1902년)에는 官內府住屬으로 管理署를 원흥사에다 두어 전국사찰에 대한 일체 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는데 이때 발포된 36개조의 사찰령 즉 社寺管理署 管理細則을 보면 제4조 승려의 法階를 如左 三級으로 인정하니 一級은 內法 승이니 法師講師 發心修行者, 二級은 外法階僧이니 宗名級法月鼠 20歲以上者 (無宗名 凡僧이란 선종敎宗이라 稱할 수 없는 수행없는 托鉢業者 念탁발業者를 말함) 第5條는 「僧侶의 大衣色은 如左 三等으로 改定하니 一級僧은 正紅色 有文錦欄, 二級僧은 正紅色 無文錦欄, 三級僧은 正紫朱 無文者」라고 있다. 1910年 8月에 佛敎는 日本總督의 治下에서 다시 새로운 체재로 바뀌게 되었고 1911年 6月 3日에 사찰령이 제정되었다. 1912年 부터는 사찰령에 의한 체재가 갖추어져 갔는데 당시 僧規 67조의 衣制에는 「僧尼의 衣冠은 其法階와 匹對하여 被着함으로 하되 其色別 地質及制式은 左表와 如함 但 本持 住寺는 법계에 不拘하고 최상급의 의관을 被着함을 得함」이라 하였다. (우정상,1976)

근대의 실물가사로는 위의 衣制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大禪師나 大敎師가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二十五條 홍가사, 九條 홍가사, 九條 청색가사, 十七條 반가사가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으며, 전남 대흥사에 홍색 二十五條가사가 전해온다. 이 가사들은 1950년대 말까지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5조 홍가사는 홑겹의 홍색견으로 가사 전체에 목단무늬가 시문되어 있다. 25조 4장 1단으로 되어 있으며 흰색의 견사로 손 박음질되어 있다. 폭이 5cm, 길이 48cm가량의 끈이 위쪽에 두개 부착되어 있다. 가사의 네각에는 사천왕을 상징하는 天,王字가 미색바탕에 청색의 글자로 수놓고 글자의 가장자리를 금사로 둘렀다.

9조 홍가사는 홍색 홑겹으로 夏節의 가사로 보인다. 위사와 경사를 인견과 견사의 교직으로 제직된 것이며 소재는 중국산 비단이다. 9조 1장 1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흰색의 견사로 손 박음질 되어 있다. 폭이 3cm 길이가 33cm인 끈이 가사 색과 같은 색과 같은 재질로 위쪽에 한 개가 부착되어 있으며, 95cm 떨어져서 또 하나의 끈이 부착되었던 흔적을 볼 수 있다. 가사의 네 각에는 사천왕을 상징하는 天, 王자가 홍색바탕에 미색의 글자로 수놓아져 있다. 그리고 4번째조에는 옴자의 수판을 볼 수 있는데 원래 두개가 부착되었으나 그 중 하나는 낡아 떨어져 없어진 것 같아 보였다.

청색 9조 가사는 청색 비단바탕에 금사로 국화와 목단무늬가 시문되어 있다. 9조 2장 1단으로 되어 있으며 흰색의 견사로 손 박음질되어 있다. 끈이 부착된 흔적은 볼 수 없고 가사의 위쪽 부분에 폭이 6.5 cm, 길이 52 cm 가량의 흑색 천이 덧붙여져 있다. 가사의 네각에는 天·王자가 미색바탕에 금사로 수놓아져 있다.

17조 반가사는 제작연도가 1930년에서 1940년으로 추정되는 가사이며, 大禪師나 大敎師가 착용한 것으로 보이며, 1950년대까지 입었던 가사로 추정된다. 이 가사는 홑겹 홍색 견을 원료로 하여 능직으로 직조되어 있다. 이 가사의 구성을 보면 17조 3장 1단으로 되어 있으며, 흰색의 견사로서 손 박음질되어 있다. 9 cm 가량의 자주색과 청색의 영자가 같은 색끼리 연결되어 부착되어 있다. 가사의 네각에는 사천왕을 상징하는 天,王의 수가 있는데, 모두 흑색바탕에 天字는 흰색과 홍색으로 王字는 미색과 녹색으로 수놓아져 있다. 일곱번째조에는 日을 상징하는 三足烏, 月을 상징하는 토끼, 옴자(字), 남자(字), 연화문 등이 방형의 수판에 수놓아져 있다.

대흥사 소장의 二十五條 홍가사는 가로 216cm, 세로 104cm 크기로 25조 4장 1단으로 구성된 대가사이다. 홍색의 견에 목단 무늬로 되어있고, 袈裟와 같은 地質로 두개의 영자가 부착되어 있다. 가사의 네 각에는 천·왕자가 새겨져 있으며 열세번째조에는 원형의 수판이 두개 부착되어 있는데, 二足烏와 토끼를 수 놓았다.

현재 한국 불교는 각 종단마다 복식이 다르다. 승려의 공통적 복장은 우리나라 고유복인 바지, 저고리 形式의 동방을 입고 그 위에 長衫을 입고 袈裟를 착용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착용하고 있는 가사 중 천·왕자를 볼 수 있는 가사로는 太古宗 袈裟<圖 3> , 天台宗의 袈裟등이 있다.

太古宗 袈裟는 조선 시대 이후로 사용되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조계종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5조 絡子라던가 7조 낙자, 7조 半가사 등은 일본에서 유입되었다 하여 현재는 착용하지 않으며, 주로 홍색의 대가사를 착용한다.

태고종의 가사의 형태는 방형이며 가사의 착용방법은 편단우견으로 하며, 매듭과 고리를 사용하기도하고 같은 색의 여자(끈)을 달아 왼쪽 윗 가슴 부분에서 묶기도 한다. 사각천의 네 귀퉁이에 天字와 王字를 天字는 위쪽에 王字는 아래에 수놓는다.

天台宗의 袈裟는 一級 宗正부터 六級까지의 승려들은 大袈裟를 착용하며, 七級은 황색 輪袈裟를 착용한다. 一級 袈裟는 二十五條 大袈裟로 겉은 붉은색 견이며 안은 황색 견으로된 겹가사이다. 가사는 황색의 金絲로서 수놓았는데, 上一段에는 佛像, 二,三段에는 菩薩像, 四段에는 經典名, 五段에는 尊者像을 수놓았다. 또 중앙에는 海印圖가 있으며, 중앙에서 좌측으로 세번째조에 日을, 우측에는 月이있다. 가사의 네각에는 흰색의 絹바탕에 흑색 실로서 天, 王을 수놓았다.

이와 같이 가사의 네각에 천왕의 수를 놓기도 하지만 天·王字 대신에 옴( )字를 수놓기도 한다. 그 예로는 신라시대의 자장율사가사, 그리고 조선시대의 碧巖大師 가사, 현재 太古宗, 天台宗, 法相宗, 華嚴宗의 袈裟등에서도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자장율사의 가사는 경남 양산 통도사에 소장되어 있다. 통도사 寺蹟記 中에 四天指空和爲舍利袈裟戒壇法會記 印度 指空和尙이 舍利와 袈裟에 대하여 설한 것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내가 멸도한 後 내 제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滅한 것이 아니하

며 문수보살이 오대산 청량사에 袈裟를 가지고 가서 주면 수용하는 者는 千年을 지낼지니 海東 新羅 王孫 武林公의 아들 慈藏律師가 東方으로부터 法을 배우기 위하여와서 緋羅金點 袈裟一領과 珠具金葉經王帖과...등을 慈藏이 가지고 왔다」라고 하였다.

三國遺事 塔像弟四 前後狀舍利條에서는「善德王 5년(636)에 慈藏이 唐 유학도중에 淸凉山에서 文殊菩薩앞에 기도를 하고 선덕왕17년 發印(643) 3월에 唐에서 돌아오면서 佛頭骨, 佛牙, 佛舍利와 부처님이 입으시던 緋羅金點 袈裟를 가져와서 통도사 계단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의 기록으로 통도사 舍利袈裟事蹟略錄에는「創建王 慈藏律師가 貞觀12년(唐太宗의 연호 AD638)에 佛法을 구하러 唐나라에 들어가 終南山 雲際寺 文殊菩薩像 앞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였더니 하루는 文殊菩薩이 梵僧(印度의 僧侶)으로 化하여 緋羅金點 袈裟 한벌과 全身舍利 百杖과 佛頭骨과 指節과 염주와 경전등을 慈藏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本師 釋迦如來께서 親着하시던 袈裟와 全身舍利와 佛頭骨등 부처님의 유물인데 그대에게 付囑하니 받들어 가지라 하여 얼마후 慈藏이 袈裟와 기타 聖物들을 가지고 귀국하여 통도사를 세워 사리와 가사를 봉안했다」라고 하였다.

慈藏律師가 王宮으로부터 下賜받았다는 이 袈裟는 黃色비단 바탕에 雲紋으로 되어 있으며, 銅製빗장으로 着裝하도록 되어있다. 가사의 크기는 二十五條 四長一短의 大袈裟로서, 袈裟의 네각 즉 사천왕의 자리에는 가로 5cm 세로 5cm의 크기로 연화문과 옴字등을 수놓았다.

碧巖大師의 袈裟<圖 4>는 겉은 紅色銀点으로 된 비단 바탕에 목단 당초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가사의 열두번째조에는 가로 7.5cm, 세로 14.5cm 되는 장방형의 홍색 천에 日을 상징하는 二足烏와 月을 상징하는 토끼를 수놓았는데 장방형의 가장자리에는 金絲가 둘러져 있다. 조선 후기의 일월 수판이 원형의 수판인데 반하여 조선중기 이전은 방형의 수판에 일월이 수놓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가사의 크기는 가로 232cm, 세로 75cm이며 19條 3長 1短으로 되어 있다. 長條는 가로 12cm, 세로 18.5cm, 短條는 가로 12cm, 세로 9.5cm이다. 綠色, 紅色, 黃色의 三色 즉 6개의 糸縣子로 입도록 되어 있다. 袈裟의 네 각에 옴字를 수놓았다.

이 옴자는 一切의 萬法이 이 한 자에 귀속한다고 해석되며, 이것은 본래 신에게 기원할 때의 감탄사였다.(운허용하,1971) 이와 같이 옴자도 天·王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다.

이처럼 간략하게 天·王字만을 써서 四天王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지만 四天王의 형상을 그림으로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觀音禪院의 金蘭袈裟<圖 5>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繡林苑,1974)

2. 高僧眞影에 나타난 天·王紋

高僧眞影이란 덕높은 스님들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이다.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지키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교의 맥을 이어온 과거의 스님들의 모습을 기록하여 추모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석가가 가습에게 염화시중의 미소로 법을 전하였듯이 스승과 제자 사이의 師資相承을 중시하여 스승의 깨달음의 경지에 담겨 있는 모습을 진영으로 남겨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 초상화에는 겉모습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하겠다. 고승진영은 초상화의 성격을 가지면서 또 祖師信仰의 예배대상이 되는 불화로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고승진영은 한 사찰에 수십 점씩 봉안되고 있고, 한 인물에 대하여 여러 점이 제작 될 수도 있다. 宗派의 始祖나 사찰의 창건주를 비롯하여 역대 고승 대덕들의 모습이 비단 화폭에 그려져 眞影堂에 모셔져 있다. 고승진영은 불교가 수용된 당시부터 조성되었으리라 짐작되지만, 삼국시대의 진영조성에 대한 기록은 찾아지지 않아 그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현재 전하고 있는 진영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진영조성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813년에 단속사에 세워진 신행 선사 비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신행선사 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던 원효, 의상, 보덕의 진영도 봉안되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것은 고려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삼국시대에서는 고승진영의 조성이 그리 성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統一新羅時代에 들어와서는 신행선사를 비롯하여 다수의 선사들의 진

영이 봉안된 것으로 보인다. 문헌이나 현존하는 진영들을 보면 고려시대에 와서는 신라 때보다 더욱 활발하게 진영이 조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 前期에는 抑佛政策의 영향으로 진영조성이 활발하지는 못하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고승 대덕들의 진영을 옮겨 그리거나 새로이 조성하는 한편 국가 유공자와 특정 문중에 속하는 승려들의 진영이 활발히 조성되었다. 이러한 추이는 18세기 이후에 더욱 활발해져서 각 지방으로 문중이 확산됨과 동시에 각 사찰별로 고승이나 주지들의 진영이 많이 조성되었고 제자들이 번성하면서 각기 문중의 法系와 사찰 단위로 진영이 조성되어 활기를 띠게 되었다. 고승진영에서 천왕문을 볼 수 있는 가사로는 通度寺에 소장되어 있는 影波聖奎의 眞影<圖 6>, 法住寺에 소장되어 있는 蓮潭世弘의 眞影, 桐華寺에 소장되어 있는 楞菴 世章의 眞影, 그리고 金龍寺에 소장되어 있는 性月의 眞影 등에서 볼 수 있다.

고승진영에서 볼 수 있는 고승들의 복식은 白衫 위에 黑色線이나 綠色線을 두른 長衫을 입고 偏袒右肩으로 袈裟를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가사의 色은 거의 모두 紅色이며, 동화사 소장의 普照國師袈裟와 범어사 소장의 東山大宗師袈裟는 황색, 송광사의 圓鑑國師의 袈裟는 녹색이다. 가사의 안의 색이 다르게 표현된 겹가사의 착용도 볼 수 있다. 가사의 겉이 紅色, 안이 綠色인 紅綠 겹가사인 것은 眞鑑國師袈裟, 송광사 소장 普照國師袈裟, 동국대학교 박물관 소장 覺眞國師袈裟, 통도사 소장 成淸大師의 袈裟등이다. 紅黃 겹가사인 것은 仙岩寺 소장 道詵國師, 大覺國師, 無學大師의 袈裟이다. 그 외 綠紅 겹가사, 紅靑 겹가사, 紅黑 겹가사등을 볼 수 있다. 仙岩寺 소장 大覺國師의 유물가사도 紅色으로 일치하고 있다. 律에 의하면 僧伽梨의 다른 명칭으로 複衣, 重衣, 合衣라고도 하는데 여기서의 겹가사는 大袈裟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여진다.

高麗圖經에 나타난 三重和尙大師의 紫黃貼相袈裟를 紫色 바탕에 黃色으로 緣, 葉을 두른 袈裟로 본다면, 紅綠貼相袈裟는 普照國師袈裟, 月虛堂戒靑袈裟는 紅綠貼相袈裟이며, 圓鑑國師袈裟는 綠紅貼相袈裟이다. 그리고 고려말에는 三重大師 이상 국사급에서도 帖相袈裟를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 쌍영총 벽화에서나 羅末麗初의 作品으로 추정하는 希朗祖師의 木造像에서나 佛畵에서도 보듯이 貼相袈裟는 진영을 조성하기 시작 초부터 있었다고 보아지고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貼相袈裟는 없어지지 않았나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緣만 다른 色인 것은 선암사 소장의 指空, 懶翁, 無學의 袈裟이며 靑色緣을 댄 것은 통도사 소장 海松堂 寬俊의 가사이다. 袈裟바탕이 전체적으로 華紋으로 된 函湖堂禪師袈裟, 條와 葉緣을 구분하여 문양을 나타낸 동화사 소장의 泗溟大師袈裟가 있다. 袈裟의 緣이나 葉에 文樣이 있는 袈裟도 볼 수 있다. 大覺國師의 袈裟는 緣과 葉에 華文樣이 있고 覺眞國師, 碧松智嚴, 환성지안의 袈裟에는 緣에 연화문, 화문을 볼 수 있다. 律文에 의하면 葉 부분을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또는 염색을 한다든가 해서 葉으로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袈裟에서는 緣,葉 또는 袈裟 전체적으로 문양이 있어서 原形(律文)의 袈裟와는 달리 화려하게 변하게 된 것을 진영을 통해 알 수 있다.

長方形 袈裟의 네각에는 정사각형의 작은 천(角帖)을 덧대고, 그 위에 天王의 글자를 수놓기도 하고, (옴)字, 四天王象을 수놓기도 한다. 고승의 진영에서는 (옴)字나 四天王象은 보이지 않고, 袈裟의 바탕 천과 다른 색의 천으로 天王의 표시를 하거나 天王의 글자를 흑색 바탕에 흰색으로, 녹색 바탕에 흰색, 청색 바탕에 흰색으로 天王字를 네 귀에 써 놓았다.

V. 결론

외래사상인 불교는 우리 나라에 전래되면서 우리의 사회·문화적 조건과 마찰·융화하면서 변화하였다. 고유의 풍속·전통·사상·신앙적 요소들이 사적기나 불교의 의례 등에 잔존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입증한다. 하나의 의복인 동시에 불교의 실천적 수단이기도 한 가사도 이와 같은 과정에서 변모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불교가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의 토양 속에서 환경순응적인 적응을 하는 토착화과정에서 형성된 현상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사찰은 사천왕상이 정문에 위치하고 있다. 사천왕은 동, 서, 남, 북을 지키는 방위신으로 악귀를 밟고 무기를 든 형상을 하고 있다. 사천왕은 호법신으로 삼국시대에 불교의 수용과 함께 등장하였고, 사천왕상이 본격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삼국통일기이다. 사천왕상을 조성하게 된 배경은 통일을 기원하는 호국적 염원에서 비롯되었고, 그 후 점차 호국사상에서 벗어나 불전을 수호하는 신으로 믿게된 것이다.

우리 나라의 불교는 전통적 우리의 종교적 성향과 습합하여 佛·法·僧의 三寶信仰의 형태로 발전하였다. 佛寶에 대한 신앙은 佛殿과 擁護神衆閣의 건립으로, 法寶에 대한 신앙은 經典板刻으로, 僧寶에 대한 신앙은 승려에 대한 존경과 布施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袈裟는 제율법에 의하면 수행에 방해받지 않는 색상으로 했으며, 소재로는 小欲知足의 불교교리를 실천하는 수단으로서 분소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가사에는 율법으로 규정된 원형의 가사나 불교발생지인 남방의 가사에서는 볼 수 없는 天·王紋을 볼 수 있다. 그 예로서 유물로 전해오는 실물가사로 大覺國師의 가사, 碧巖大師의 가사, 현재 태고종, 천태종 등의 가사와 고승진영에서는 影波聖奎의 진영, 性月의 진영 등에서 天·王紋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사의 네 각에 天·王字만을 써서 사천왕을 상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천왕의 형상을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관음선원의 金蘭袈裟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재래의 민간사상과 습합하여 僧寶信仰의 형태로 발전함에 따라 가사는 분소의로서의 본질적 의미는 상실하였고 僧寶에 대한 신앙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즉 가사의 네 각에 사천왕상을 상징하는 천왕문을 수놓음으로써 승려를 보호할 수 있다고 믿게된 것이다.

주제어 : 律法, 袈裟, 四天王, 天王紋, 三寶信仰

참고문헌

임영주(1983), 한국문양사, 미진사, 191.

김동호(1995), 佛心과 修行功德, 경인출판사

유동식(1978), 民俗宗敎와 韓國文化, 현대사상사, 59-65.

우정상(1976), 한국불교사, 신흥출판사, 167-184

운허용하(1971), 불교사전, 홍법원, 629.

최완수(1973), 간다라佛衣考,불교미술1

임영자(1990), 한국종교복식, 아세아문화사.

繡林苑(1974), 이조의 자수, 88.

李丙燾(1977), 三國史記國譯편, 乙酉文化社, 75.

임영애(1996), 무장형 사천왕상의 연원, 강좌미술사 11.

鄭雲龍(1990), 삼국시대 불교의 전입상황과 외래문화의 수용자세, 대륙연구소, 80.

釋一然(1512), 三國遺事, 권3, 興法第三 原宗興法條, 東國文化社,

안명숙(1989), 가사의 衍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순덕(1995), 韓國袈裟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권강미(2001), 통일신라 사천왕상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高麗大藏經 권17, 914

新修藏經 권4(1926), 168.

新修藏經 권22(1926), 676-850.

南傳大藏經 3권(1938), 대장출판주식회사, 499. 531-532.

井筒雅風(1982), 法衣史, 15-16.

久馬慧忠(1967), 袈裟の研究, 大法輪閣版

(2003. 8. 4 접수; 2003. 8. 29 채택)